

경제

광주은행·현대삼호중도 夏闘 가세

기아차 부분파업 130억 손실...금호타이어 사측 직장폐쇄 경고

금호타이어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이고, 광주은행·현대삼호중도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노동계의 하투(夏闘·여름투쟁)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 제17차 본교섭(대표교섭 8차)을 열어 접점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사측은 쟁의행위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격려금 성격의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날 하루 평소의 50%가량 생산 차질을 초래해 35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7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하루 평소의 50%가량 생산 차질을 초래해 35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7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지난 13일 근무조별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 노조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라 지난 13일 오전 10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주간조가,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30분까지 야간조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파업에 이어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주·야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6일째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조는 15일부터 부분파업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해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 제17차 본교섭(대표교섭 8차)을 열어 접점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사측은 쟁의행위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격려금 성격의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날 하루 평소의 50%가량 생산 차질을 초래해 35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이번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7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미·EU 수출 감소세...하반기 무역 비상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력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 하반기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000만달러로 작년 6월(19억10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5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다. 월간 흑자 규모로는 2010년 10월(63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이며 역대 6번째다.

월 -8.4%, 6월 -0.3%로 2개월 연속 하락해 하반기 전망을 어렵게 했다. 작년 매달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던 대일 수출 증가율은 올해 6개월간 2.4%로 쪼그라들었다.

6월 무역수지 흑자가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분은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의 영향이 컸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확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은 작년 6월보다 1.1% 증가한 472억5000만달러, 수입은 5.5% 줄어든 42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5월(-1.0%)에 이어 두 달째 감소해 부진한 내수 경기를 반영했다.

그럼에 6월 무역수지 흑자는 49억 2000만달러로 작년 6월(19억10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5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다. 월간 흑자 규모로는 2010년 10월(63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이며 역대 6번째다.

올 여름 해외여행객 사상 최대 관세청 밀반입 검사 대폭 강화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국외 여행객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16일부터 8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여행객 휴대품 검사비용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외국 주요 소액여행사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전량 개장검사를 할 방침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수연 사무관은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고 물품을 대리운반하다가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여름휴가일수 늘리고 휴가비 줄여

올해 기업들은 여름(하계) 휴가 일수를 늘렸지만 휴가비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농·수업·임·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 분야에서 전국의 100인 이상 452개 기업(중소기업 354개, 대기업 98개)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다 2.7%(1만2000원) 줄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리먼사태가 발생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휴가 일수가 올해는 늘어났다.

광양 포스코 수련원서 전국 소상공인 워크숍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강영태)는 16~17일 이틀간 광양 포스코수련원에서 '전국 소상공인 포럼 리더 합동 워크숍'이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특성화 고교생 채용 박람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광주·전남·제주 테크노파크는 17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장등동 중소기업호남연수원에서 '특성화고교생 채용 박람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 11개사 시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헌)은 지난 12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화천기공 등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11개사를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시상했다.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various travel and service offers. It includes sections for '자유투어' (Free Tours) with prices for different destinations like Gyeongju, Jeonju, and Jeju. There are also sections for '시원한 여름, 평~평~' (Cool Summer, Flat~Flat~) with car rental offers, '사해대협곡(황산직항)' (Sahaedaehyeok) with boat tours, and '캐나다' (Canada) with travel packages. The bottom part of the ad lists various travel agenci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